

●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.

1.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통설에 의함)

- ① 회사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명예권과 상호권을 가질 수 없다.
- ③ 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없다.
-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.

2.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관한 연결 중 틀린 것은?

- ① 합명회사 — 총사원의 동의
- ② 합자회사 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
- ③ 주식회사 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
- ④ 주식회사 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
- ⑤ 유한회사 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

3.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?

- ㄱ.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데,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.
- ㄴ.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·연대·무한책임을 진다.
- ㄷ.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·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.
- ㄹ.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,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갖는다.
- ㅁ.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그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.
- ㅂ.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.

- ① ㄱ, ㄴ, ㄷ ② ㄴ, ㄷ, ㄹ ③ ㄷ, ㄹ, ㅁ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ㄹ, ㅂ

4.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A합명회사를 설립하였고, A회사는 丙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하였다.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甲은 회사설립취소의 소를 乙과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.
- ② 甲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A회사는 丙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甲이 제기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A회사의 설립등기 시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.
- ④ A회사의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
- ⑤ A회사의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.

5.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사원은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만, 무한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② 사원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의 출자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.
- ③ 출자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, 사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소멸한다.
- ④ 출자이행의 시기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의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.
- ⑤ 청산인은 회사의 현존재산이 회사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변제기에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하여야 한다.

6.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판례에 따르면,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은 유효하다.
-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정한다.
- ③ 모집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은 주식의 배정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할 수도 있다.
- ④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인수를 한 것을 발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- ⑤ 우리 상법은 설립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다.

7.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주식인수가 취소되어도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생기지 않는다.
- ② 회사성립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에 따라 주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신주인수인이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에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에 의하여 주금액을 납입하면 주주가 된다.
- ④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인이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는 납입담보책임을 진다.
- ⑤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도 면제할 수 없다.

8. 상법상 주식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주식의 분할은 단위주식의 시가를 낮추기 위한 경우 또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이용된다.
- ②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, 1주의 금액은 최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.
- ③ 주식이 분할되더라도 회사의 자본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.
- ④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,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⑤ 주식분할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에 발생한다.

9.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주권불소지제도를 배제할 수 없다.
- ②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기명주식의 양수인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.
- ④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도 주권불소지의 신고는 이를 반드시 회사에 하여야 하며,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주권발행 전에 기명주식의 인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.

10.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- ② 합병회사는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로 존속할 수 있다.
- ③ 합병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존속회사를 제외하고 합병당사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.
- ⑤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11.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.
- ② 무기명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,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 점유가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.
- ③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외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기명주식의 약식질권자는 유치권, 우선변제권, 전질권을 가지나 물상대위권을 갖지 못한다.
- ⑤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는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
12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자본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.
- ② 관례에 따르면,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.
-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.
- ④ 해산, 회사의 합병, 회사의 분할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.
- ⑤ 이사·감사의 선임과 해임,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.

13.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 전속권한이므로 이를 이사회에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.
- ③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- ④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, 신주발행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도 미친다.

14.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나,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,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.
-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선임되나,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정될 수 있다.
- ⑤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.

15.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통설에 따르면,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행위를 포함한다.
- ② 판례 및 통설에 따르면, 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상무라고 칭하면서 대표권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③ 판례에 따르면,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어야 하는데, 여기서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.
- ④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.
- 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표현대표이사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

16. 1인회사인 甲건설주식회사의 지배주주 A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대표이사 직인 및 B의 인감을 받아 보관하면서 C 등 상가분양신청자들과 직접 甲회사의 명의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. 분양대금도 A 개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, 결국 甲회사는 상가건설 중에도산하고 말았다. C는 甲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나,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.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C는 A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C는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③ C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근거로 A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甲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.
- ⑤ C는 A와 B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.

17. 상법상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.
- ②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.
- ③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신주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.
- 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.

18. 자본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자본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,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.
- ②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, 담보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의 신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19.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위법배당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배당을 받은 주주의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익배당이 행해진 당시의 채권자이어야 한다.
- ④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.
- ⑤ 이사는 위법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20. 존속회사를 ‘甲’, 소멸회사를 ‘乙’이라고 할 경우에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甲회사가 합병시에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甲회사는 합병승인의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乙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甲회사의 순자산액의 2%를 초과하는 때에는 甲회사의 주주총회에 의한 합병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다.
- ④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甲회사의 주식 20%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.

21.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,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분할 전 회사의 출자(현물출자)만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,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·보고가 필요 없다.
- ③ 단순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익권이 인정된다.
- ④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22. 상법상 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이사(대표이사)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주식회사는 상인이므로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총칙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- ③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
- ④ 이사(대표이사)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본점에 비치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.

23.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.
- ②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없다.
- ③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④ 조직변경의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⑤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은 무효로 된다.

24.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유한회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, 이를 공고할 의무는 없다.
- ②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.
- ③ 유한회사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결손의 전보에 사용하거나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.
- ④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건설이사배당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중간배당이 인정된다.

25.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의무이다.
- ②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.
- ③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에, 그 거래는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나 악의이면 무효가 된다.
-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손해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,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.

26.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상업장부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.
- ② 회사 이외의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칙으로 원가주의에 의하고, 예외로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한다.
- ④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27.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②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③ 부실등기의 공신력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④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⑤ 판례에 따르면,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, 국가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.

28.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·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.
- ③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상계에 의해 생긴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상호계산은 상인간의 상시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상계계약이다.
- ⑤ 불법행위나 사무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도 상호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29.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혼인중매와 같은 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지만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.
- ③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다.
- ④ 중개인은 중개료에 대한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중개료를 균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중개인은 결약서의 교부가 완료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30.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·항만에서 여객 또는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.
- ② 운송계약의 체결에는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, 구두의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.
- ③ 운송인이 운송 중에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·채당금(替當金)·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이 그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측의 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- 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·훼손된 사실을 알고서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, 이를 수하인 등이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31.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훼손·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,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.
- ③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.
- ④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, 보관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부출고의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.

32.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는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.
- ③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결과책임을 지므로,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④ 통설에 따르면,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.
- ⑤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.

33. 인수와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지급제시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.
-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, 배서인은 1년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인 경우에 발행인은 인수를 위하여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.
- ④ 인수에서는 지급과는 달리 유예기간(猶豫期間)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

34.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수표상의 권리를 소구권으로만 보는 견해에 의하면,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시가 아니라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거나 또는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한 때이다.
- ②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렵다.
-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,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의 배서나 교부만으로 양도된다고 한다.
- ④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, 판례이다.
- ⑤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로 백지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.

35.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말소권(抹消權)이 있는 자가 말소한 배서만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②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'지급에 갈음한' 것으로 본다.
-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양도할 때에는 그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권능을 아울러 부여하는 것이다.
- ④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어음의 위조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.
- 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어음면상 '발행지'의 기재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본다.

36.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소구의무자에 대한 수표상 권리의 시효기간은 6월, 재소구권의 시효기간은 1월이다.
- ②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이율의 기재만 있다면 그 효력이 있다.
- ③ 수표에는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등본제도가 인정된다.
- ④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⑤ 수표는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복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.

37. 환어음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**틀린** 것은?

- ① 환어음에서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.
- ② 확정일출급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-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증권의 본문(本文)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.
- ⑤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.

38. 배서에 관한 설명 중 **틀린** 것은?

- ①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수표의 지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.
- ③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.
- ④ 환어음은 지시식(指示式)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.
- 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.

39. 배서인 A는 B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면서 “추심(推尋)하기 위하여”라는 문언을 기재하였다. 어음소지인 B가 만기에 어음상의 채무자인 C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B는 추심의 대리권만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 중 어음금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C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③ A가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B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- ④ B는 A의 허락을 받아야만 재추심위임(再推尋委任)의 배서를 할 수 있다.
- ⑤ C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B는 A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40. 甲은 乙의 자금유통을 도와주기 위하여 乙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. 이후 乙은 이 어음을 C에게 배서하였는데 C는 그 어음이 대가 없이 발행된 유통어음임을 알고 취득하였다. C가 만기에 甲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판례에 의함)

- ①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호의적으로 발행된 유통어음은 원인 관계가 없어 무효인 어음이다.
- ②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.
- ③ 유통어음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므로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.
- ④ 甲은 C에게 악의의 항변을 제기하여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⑤ 유통어음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므로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